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25주 / 추수감사주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36:1-4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20장(새 66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64번(새 105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게 하시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어 감사의 영을 잃지 않도록 항상 십자가를 밝히 보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누가복음 17:11-19 인도자
- 특별찬양(Special Hymn) (4절은 다함께) 찬양팀
- 말씀증언(Sermon) 감사의 본질 이송원 목사
- 성찬식(Communion) 285장(새 228장) 다함께
(성찬보좌 : 박준영 권사, 최은진권사)
- 봉 헌(offering) 489장(새 429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12장(새 593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3. 오늘 친교시간 후 12:40분에 믿음속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은 소망속회로 모입니다.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마태복음 25:31-46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며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작은 자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칩시다.

〈말씀묵상〉 누가복음 17:11-19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하거늘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
함을 받은지라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
마리아 사람이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
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 나병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들의 반응,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
까?(11-14절) 나에게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위기를 벗어난 경험
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2. 나병이 나은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으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어
떤 말씀을 하십니까?(15-19절)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날 때는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
난과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뽑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
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잘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극한의 환
경과 상황에 짓눌리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
면 가령 주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벗어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신 주님보다는 문제
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을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만큼 크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환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
종함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에게 멸시받는 이방인이었지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은 육체의 치
유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